



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

| 시황/ESG Analyst 이성훈 shl076@kiwoom.com



미 증시, 9월 FOMC 소화 이후 엔비디아의 인텔 투자 소식 등으로 상승

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

18일(목) 미 증시는 9월 FOMC에서의 보험성 금리 인하 단행 이후 연내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지속된 가운데 엔비디아의 인텔 50억 달러 지분 투자 소식이 반도체 업종 전반에 호재로 인식 된 결과 3대 지수는 상승 마감 (다우 +0.27%, S&P500 +0.48%, 나스닥 +0.94%)

점도표, 파월 의장 발언 등 9월 FOMC는 매파와 비둘기파가 다소 혼재된 성격을 지녔음에도, 금번 금리 인하의 성격이 '보험성' 금리인하이고, 연내 추가 금리 인하가 유효하다는 인식 속 미 증시의 랠리는 지속(Fed Watch 기준 10월, 12월 2차례 금리 인하 확률은 현재 83.9%). 금리 인하 효과 기대감이 지속된 결과 상대적으로 부채비율이 높은 중소 기업 중심의 러셀 2000 지수가 주요 지수 대비 큰 폭 상승(+2.5%)

금리 인하 외에도 지난달 말 엔비디아의 견조한 실적을 기점으로 브로드컴(오픈 AI에 대규모 공급 계약), 오라클(잔여 이행 의무 RPO 급증), 마이크론(실적 기대감 속 주요 외사의 목표주가 상향) 등 AI 및 반도체 관련 호재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도 미 증시의 기술주 랠리를 견인. 전일에도 엔비디아의 인텔 50억 달러 지분 투자 및 차세대 칩 공동 개발 합의 소식 속 인텔(+22.7%)을 비롯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(+3.6%) 급등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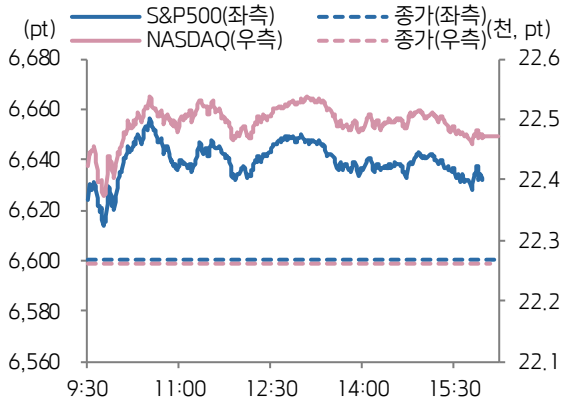
9월 초 비농업 고용 → CPI → FOMC라는 빅 이벤트를 모두 양호하게 소화한 가운데 9월 말까지 매크로 측면에서 증시에 영향을 미칠 주요 이벤트는 부재한 상황. 이를 감안시, 연준 금리 인하와 AI 내러티브라는 주요 촉매가 유효함에 따라 위험자산 선호 심리 속 미 증시의 완만한 상승 추세는 지속될 수 있다고 판단되며, 단기적으로는 매크로보다는 마이크로 측면에서 개별 종목별 이슈에 주목하는 장세가 연출될 전망.

전일 국내 증시는 9월 FOMC 금리 인하 및 연내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감 속 위험 선호 심리 재개되며 재차 반등세 연출. 특히, 업황 기대감 속 외국인 및 기관의 반도체 순매수가 이어지며 반도체 업종으로의 수급 쏠림 연출. 그 외에 금리 인하 기대감 속 바이오, 인터넷, 로봇 등 성장주 강세도 특징적 (코스피 +1.40%, 코스닥 +1.37%).

금일 국내 증시도 사상 최고치 경신 속 가격 부담에도 연준 금리 인하, 반도체 실적 개선 기대감, 대통령 주시시장 부양이지 속 완만한 상승세가 지속될 전망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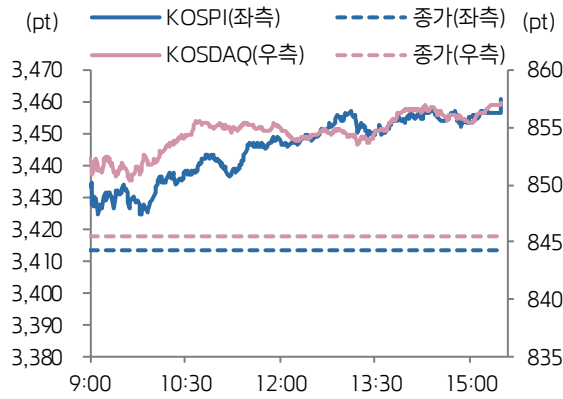
한편, 9월 기준 코스피의 수급 주체별 동향을 살펴보면, 외국인(+6.9조), 기관(+2.1조), 개인(-9.7조)으로 외국인 중심의 자금 유입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흐름. 이 같은 외국인 자금 유입에도 여전히 현재 코스피 외국인 지분율은 32.9% 수준으로 지난 '24년 7월 35%에 못치고 있다는 점을 감안시, 외국인 자금의 추가적인 유입 여력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판단. 9월 업종별 수급 동향을 살펴보면, 전체 외국인 순매수 자금 6.9조 원 중 약 86%(6조 원)가 반도체 업종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. 반도체 업황 관련 호재가 지속되는 가운데 단기적으로 반도체로의 수급 쏠림이 지속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둘 필요.

S&P500 & NASDAQ 일중 차트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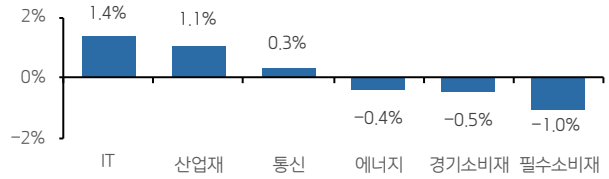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KOSPI & KOSDAQ 일중 차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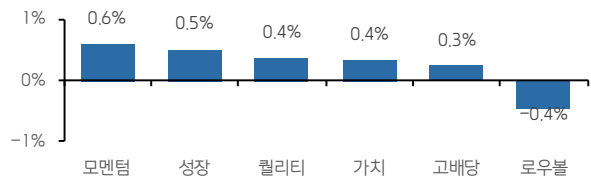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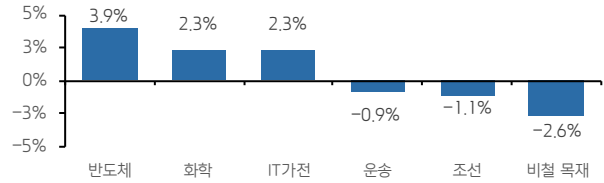


스타일별 주가 등락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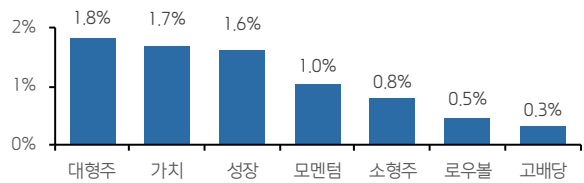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



스타일별 주가 등락률
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주요 종목

종목	증가	DTD(%)	YTD(%)	종목	증가	DTD(%)	YTD(%)
애플	237.88	-0.46%	-4.67%	GM	59.26	+0.9%	+12.17%
마이크로소프트	508.45	-0.31%	+21.29%	일라이릴리	762.93	+0.37%	-0.58%
알파벳	252.03	+1%	+33.57%	월마트	103.60	-0.64%	+15.53%
메타	780.25	+0.58%	+33.48%	JP모건	313.23	+0.47%	+32.79%
아마존	231.23	-0.17%	+5.4%	엑손모빌	113.93	-1.18%	+8.85%
테슬라	416.85	-2.12%	+3.22%	세브론	158.84	-0.78%	+13.48%
엔비디아	176.24	+3.49%	+31.27%	제너럴일렉트릭	103.60	-0.6%	+15.5%
브로드컴	345.35	-0.24%	+49.76%	캐터필러	466.96	+3.62%	+30.29%
AMD	157.92	-0.78%	+30.74%	보잉	215.66	+0.48%	+21.84%
마이크론	168.89	+5.56%	+101.13%	넥스트에라	70.79	+0.7%	+1.1%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,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

주요 지수

주식시장				외환시장				
지수	가격	DTD(%)	YTD(%)	지수	가격	DTD(%)	YTD(%)	
코스피	3,461.30	+1.4%	+44.25%	USD/KRW	1,389.00	+0.92%	-5.66%	
코스피200	475.34	+1.79%	+49.56%	달러 지수	97.35	+0.49%	-10.27%	
코스닥	857.11	+1.37%	+26.38%	EUR/USD	1.18	-0.21%	+13.85%	
코스닥150	1,433.28	+1.2%	+26.86%	USD/CNH	7.11	+0.11%	-3.11%	
S&P500	6,631.96	+0.48%	+12.76%	USD/JPY	148.00	+0.69%	-5.85%	
NASDAQ	22,470.72	+0.94%	+16.36%	채권시장		가격	DTD(bp)	YTD(bp)
다우	46,142.42	+0.27%	+8.46%	국고채 3년	2.400	-1bp	-19.5bp	
VIX	15.70	-0.13%	-9.51%	국고채 10년	2.751	-2.4bp	-12bp	
러셀2000	2,467.70	+2.51%	+10.65%	미국 국채 2년	3.564	+1bp	-67.8bp	
필라. 반도체	6,278.16	+3.6%	+26.07%	미국 국채 10년	4.104	+1.7bp	-46.5bp	
다우 운송	15,642.24	+0.9%	-1.59%	미국 국채 30년	4.724	+3.4bp	-5.7bp	
상해종합	3,831.66	-1.15%	+14.32%	독일 국채 10년	2.726	+5.1bp	+35.9bp	
항생 H	9,456.52	-1.46%	+29.72%	원자재 시장		가격	DTD(%)	YTD(%)
인도 SENSEX	83,013.96	+0.39%	+6.24%	WTI	63.57	-0.75%	-7.62%	
유럽, ETFs		가격	DTD(%)	YTD(%)	브렌트유	67.44	-0.75%	-9.65%
Eurostoxx50	5,456.67	+1.62%	+11.45%	금	3,678.30	-1.06%	+32.94%	
MSCI 전세계 지수	979.18	+0.29%	+16.38%	은	41.71	-0.04%	+42.63%	
MSCI DM 지수	4,264.86	-0.12%	+15.02%	구리	454.10	-0.66%	+12.78%	
MSCI EM 지수	1,347.85	+0.59%	+25.33%	BDI	2,180.00	+1.21%	+118.66%	
MSCI 한국 ETF	80.75	+1.15%	+58.68%	옥수수	423.75	-0.7%	-4.51%	
디지털화폐		가격	DTD(%)	YTD(%)	밀	524.25	-0.76%	-12.41%
비트코인	117,579.55	+1.66%	+25.47%	대두	1,037.50	-0.6%	+1.19%	
이더리움	4,606.49	+2.27%	+37.65%	커피	380.85	+1.38%	+31.62%	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,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

Compliance Notice

- 당사는 9월 18일 현재 상기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
-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고지사항

-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,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 -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, 유가증권의 종류, 종목,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,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. -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, 복제, 전시, 배포, 전송, 편집, 번역,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·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.
